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1-01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1-01
2020년 11월 01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132829353](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32829353)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년 11월 01일

차례

1. [노사협력? 노오사아허업려억? ㅋㅋㅋ]	3
2. [WTO 도, '우리' WTO 대표도필요없다]	3
3. [짹새는짹새다]	4

1. [노사협력? 노오사아허업려억? ㅋㅋㅋ]

문재인대통령이현대자동차울산공장을찾아코로나위기에대응한'노사상생'을극찬했다고한다. 코로나초기부터노사가힘을합쳐사내예방활동은물론지역사회, 부품협력업체도지원하는공동활동에나섰다는것이그이유다. 그러면서현대차노동조합이'분규없이', '임금을동결' 시키는'통큰' 합의를했다고도치하하시었다.

하지만이러한결과물은결국비정규직노동자들을갈아넣은결과가아니던가? 지난 2 월 28 일, 현대차에서코로나 19 확진자가발생하자정규직에게는마스크가지급되고선별진료와퇴근조치가이루어졌다. 하지만비정규직은마스크가지급되지않거나, 하청업체로부터비웃음을당하듯'방한대' 를지급받았다. 선별진료를받지도못했다. 어느작업장에서확진자가나왔는지조차알수없었다.

2 월 25 일, 현대차노사가'코로나 19 관련특별합의' 를통해마스크 10 만개를확보하고사내확진자발생시 KF94 마스크를지급하겠다는합의를한지사할만의일이였다.

문대통령이이러한일을알았는지몰랐는지는모르겠다. 아니, 관심이였다. 알고서현대차를칭찬했다면그는그야말로반노동의화신일것이고, 몰랐다면직무유기일것이니어느쪽이든분노를피해가기는어려울것이다. 대대를위해서는소소를희생해야하는가? 그렇다면문겠다. 어차피희생되어야할소는무엇하러나를지킬의지도없고능력도없는국가에충성해야하는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r>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25690>

<https://cm.lawissue.co.kr/view.php?ud=2020030413571247>

2. [WTO 도, '우리' WTO 대표도필요없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의선출과정이자마지막단계에접어든가운데나이지리아의응고지오콘조-이웰라후보와한국의유명희후보가총장자리를놓고경쟁을벌이고있다. 전반적으로이웰라후보가앞서는가운데미국이유명희후보를지지하며경쟁을이어가는모양새다. 정부나후자는자국의이익이나위상을위해유명희후보가'우리'대표로서선출되기를바라지만 WTO 가어떤기관이던가?

WTO 는만들어진이래로자유무역이라는기치아래신자유주의를확산시켜개발도상국들의시장개방을압박하며경제식민지화에앞장섰던서구제국주의열강들의신식민주의기관이다. WTO 는철저하게다국적기업, 특히미국계기업의이익을보호하는기구로서다국적기업이그들의이익을추구할수있도록타국민중을

착취하기 용이한 환경과 제도를 도입시키는데 중사하였다. WTO 에 의해 개방된 시장의 결과로 보조금과 기술력의 차이에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없었던 개도국 경제 부문, 특히 농업 부문은 무너져 갔고 미개발 산업 구조상 거기에 중사하고 있던 다수의 빈자와 소농들도 한극빈 상태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이라는 미명 아래 악명 높은 문산도는 살아남은 이들에게마저 중자값까지 갈취해 가며 마지막 한 톨까지 착취해 갈 수 있게 해왔던 것이 WTO 의 일이다. 한국도 그 예외는 아니며 WTO 출범 이래 농산물 시장 개방을 계속 압박 받아 왔으며, 오직 쌀만이 관세를 통해 그나마 보존되어 왔으나 TQR(쌀저울할당관세) 등으로 이마저도 위협받는 중이다.

WTO 는 그들의 주장처럼 만인의 이익을 위한 자유무역 기구가 아닌 가진자의 착취를 위한 국제 착취 기구에 불과하며 개혁의 대상도, 친목의 대상도 아닌 타파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번 총장을 둘러싼 경쟁은 그저 착취할 파이를 둘러싼 자본간의 탐욕스런 경쟁일 뿐인데 누가 대표가 되든 민중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WTO 도, '우리' WTO 대표도 필요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3. [짚새는 짚새다]

내년부터 경찰이 1 차 수사권,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다. 경찰은 이를 계기로 그간 검찰과의 권력 게임에서 한 스코어를 따냈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하지만 김창룡 경찰청장이 스스로도 이야기했듯,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들에게는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든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김청장의 말마따나 '수사를 받을 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수긍할 만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하는 자세가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는 그나마의 최소한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러한 것에 진정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가? 수사권이 경찰에게 옮겨왔다고 해서 그들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기소의 견으로 송치하지 않게 될 것이며 자본가들을 성실히 잡아넣을 것인가?

짚새는 짚새다. 수사권이 있는 짚새든 없는 짚새든 짚새는 짚새다. 위상은 수사권 운운이 아니라 공권력이 스스로 제 위상을 버리고 억울한 이가 없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높아지는 것이다. 경찰은 검찰에게 엿을 먹였다고 기양양해하지 말고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그나마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무겁게 고민해야 할 때일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19131?sid=102>